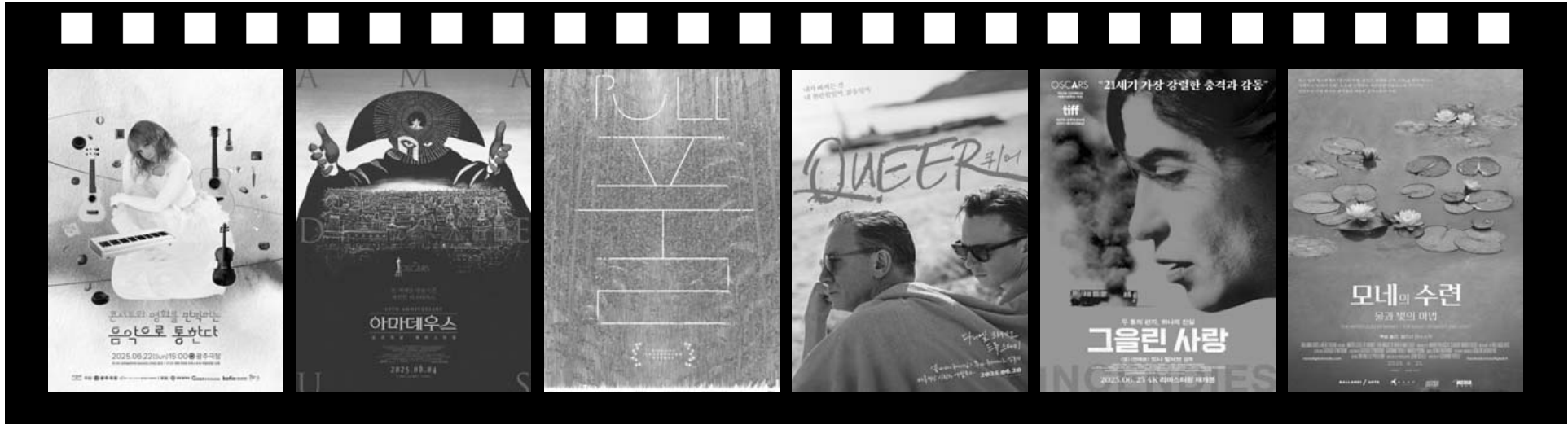




초여름 광주극장, 음악과 영화로 물들다

프랑스 아티스트 마들렌 공연, 북토크 등 ‘다채’
‘아마테우스’ ‘그을린 사랑’ 등 예술영화 개봉도

광주극장이 공연과 북토크, 예술영화를 통해 6월을 감성 가득하게 채운다. 프랑스 아티스트의 무대, 극장과 기억을 주제로 한 토크, 고전과 예술영화 신작들이 연이어 관객과 만난다. 먼저 오는 21일 영화와 문학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후 4시 영화예제이 ‘오래전, 오래된 극장에서’의 저자 김신형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열린다. 작가가 애정하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감독 정재은) 상영 이후 시인 이서영, 배우 김새벽과 함께 극장과 기억,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프랑스 아티스트 마들렌 (Madelaine)의 내한 공연 ‘음악으로 통한다’가 무대에 오른다. 광주프랑스문화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마들렌은 비올라, 피아노, 우쿨렐레 등 네 가지 악기를 넘나들며, 상송을 감성적인 팝과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100회 이상 공연을 소화한 경력을 바탕으로 뒤편이 깊고 있는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뒤 오후 5시에는 실베르 쇼메 감독의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상영된다. 특유의 섬세하고 환상적인 영상,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음악스코어가 어우러진 이작

품은 오랜 기억을 되살리는 감성적인 서사로 많은 관객에게 ‘인생 영화’로 손꼽힌다. 공연과 영화 상영이 포함된 입장료는 예매 3만원, 당일 3만5천원이며, CMS후원회원은 2만원이다. 이와 함께 6월 광주극장에서 개봉하는 다양한 예술영화에도 눈길이 모인다. 19일 스크린에 오른 ‘아마테우스 리마스터링’은 40주년을 맞아 4K 복원된 클래식 영화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대비를 통해 천재성과 질투의 아이러니를 그린다. 같은 날 개봉한 다큐 ‘폴’은 대마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금기를 다루며, 생태적 가치와 제도의 모순을 짚는다. 20일에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가 관객들을 만난다. 1950년대 멕시코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혹적인 관계의 서사를 담는다.

25일에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초기작 ‘그을린 사랑’과 예술 다큐 ‘모네의 수련. 물과 빛의 마법’이 나란히 개봉한다. ‘그을린 사랑’은 어머니가 남긴 두 개의 편지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두 남매의 이야기다. 제88회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 후보, 제35회 토론토영화제 최우수 캐나다영화상 수상 등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모네의 수련’은 물을 너무 사랑해 평생 생강근처 지베르니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인상주의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다큐멘터리다. 모네의 정원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빛과 자연을 관찰했던 인상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행사 및 개봉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임방울국악상’ 후보자 전국 공모

30일-내달 11일...본상·특별상 1명씩 선정

광주시는 19일 “광주문화예술상 국악 부문인 ‘2025 임방울국악상’ 수상 후보자를 7월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발했다.

임방울국악상은 광주 출신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국악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국이며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을 선정한다. 본상은 판소리 등 국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물, 특별상은 국악 분야에서 장래가 유망한 45세 이하인 인물을 대

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장, 임방울국악상 운영위원,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이며 추천 서류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nbg01@korea.kr),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최명진 기자

“거리의 원근은 동효의 위치로, 내외는 내괘 외괘로, 방향 및 물가·주가는 지괘로 판단”



【제17강】원근·내외·방향 및 물가·주가 고저 판단점법

먼저 원근·내외·방향 판단에 관한 판단비법이다. 가출인이나 분실물을 판단할 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동효의 위치에 따라 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초효는 가깝고 이효는 약간 가까우며, 삼효는 떨어진 곳, 사효는 멀고, 오효는 훨씬 멀고, 상효는 아주 먼 곳으로 본다. 구체적 거리 판단은 실제 알고자 하는 내용에 적용해 점단한다. 분실물 등이 안(內)에 있는가, 밖(外)에 있는가의 판단은 동효가 내괘에 있는 경우에는 안(內)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괘에 있으면 밖(外)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외괘가 간괘(艮卦)이면 동효가 외괘에 있어도 안(內)으로 단정하는데 그것은 간괘는 문(門, 대문, 교문, 성문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본괘의 동효가 있는 괄을 과거방향으로 삼고 지괘로서 현재의 방향으로 본다. 즉 진괘(震卦)는 동, 손괘(巽卦)는 동남, 이괘(離卦)는 남, 곤괘(坤卦)는 서남, 태괘(兌卦)는 서, 건괘(乾卦)는 서북, 간괘(艮卦)는 동북으로 보고, 본괘의 방향에서 최초로 움직여서 지괘의 방향으로 가서 멈춰 있다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다.

가출인 점에서 현재의 정동(停動) 상태를 판단하는 데는 주로 지괘의 동효가 있는 괄로서 판단한다. 즉 지괘가 건괘면 움직이고 있고, 태괘면 일단 멈춰 있으며, 이괘면 나타났다가 움직이고, 진괘면 움직이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손괘면 숨어 있으면서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 감괘면 숨어 있으며, 간괘면 멈춰 움직이지 않고, 곤괘면 멈춰서 숨어있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이화를 얻은 경우에는 나타나고, 감수를 얻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끝난다.

또한 분실물점에서 괄의 비슷한 물상을 물품에 해당시켜서 간괘(艮卦)는 선반의 위, 이괘(離卦)는 상자, 문갑 속 등에 있다고 점단한다.

다음 아래 ‘실점예’에서

둔지기제(屯之既濟 三動)	둔지려(遯之旅 五動)
수뢰둔	천산둔
수화기제	화산려

위의 또 하나의 ‘실점예’로서, 어느 사찰에서 귀중한 기물이 보이지 않게 됐는데 마침 점의 주지 스님이 부재(不在)여서 속히 기물의 행방을 알고 싶다고 점을 청해오자 ‘둔지여(遯之旅) 오효동’을 득괘하고 점고하기를 ‘둔(遯)은 대괘(大卦)로 상을 보면 손풍(巽風)이므로 손풍은 ‘복입(伏入)’으로 삼는 고로 아직 안에 숨어있으며 여인가에 휩싸여 들어가 있다.

건괘(乾卦)가 변해서 이괘(離卦)가 됐으니 이괘는 ‘밝을 명(明)’으로 하니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지가 돌아온 뒤 주지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건은 주인이며 군위(君位)인 구위가 동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실점예’에서 일본 나니와에 사는 어느 방탕한 아들이 가출해서 장기간 귀가하지 않음을 점해 ‘풍지관(風地觀) 불변괘’를 얻고 점고하기를 ‘관(觀)은 바람(巽風)이 지상(坤地)을 떠돌아 다니는 모습’이니 사람이 집 떠난 형상이다. 또 관은 대괘(大卦)의 상으로 봐 ‘대간(大艮)’으로서 움직이지 않고 크게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로 사람이 많이 머물 곳은 도회지다. 간(艮)은 동북방으로 에도(東京)로 떠나 있는 것이나 본시 바람은 언제 나 가고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애시 당초 확고한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므로 에도에 머물 수만은 없어 돌아온다’라고 점단에 적중했다.

풍지관(불변)	지택임(불변)	보산소괘(불변)
(地澤臨) 불변괘	을 얻고 점고하기를	“지택임”은 상하곤 태괘(坤兌卦)로 모두 움직임이 없는 머무르는 괄이다. 또

곤(坤)은 ‘숨는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 서북방인 술해방(戌亥方)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은 곤의 작괘(錯卦)는 건괘(乾卦)로 술건해방(戌乾亥方)으로, 숨어있는 경우는 음양을 바꿔서 보는 작괘로 그 위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태는 입 ‘구(口, 소식)’이라고 하는 고로 도망함으로써 소식에 올 것”이라고 했다. 결과인 즉 서북방(乾方)의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가 9월 후 스스로 소식을 알려 왔다.

분실물의 행방을 점해 ‘보산소괘(雷山小過) 불변괘’를 득괘하고 점고하기를, ‘소괘(小)는 크게 보면(大卦) 감수(坎水)로서 도적으로 삼고, 외괘 진(震)은 ‘장사(壯士)로 보아 또 달린다’는 뜻이며 내괘 간(艮)은 ‘문(門)’으로 하니 ‘분실물은 한 장사(壯士)가 도적질해서 문 밖으로 달아나 도망친 것이므로 다시는 내 손에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점단했다.

다음은 물가나 주식의 고저 판단비법이다.

만자 팔괘에 대해 고저(高低)를 개관하면, 이괘(離卦)는 고등(高騰), 감괘는 하락(下落), 손괘와 진괘는 고부동(高浮動), 건괘와 태괘는 하저둔중(下低鈍重), 간괘와 곤괘는 보합(保合)으로 판단한다.

팔괘의 고저		
(고부동) 손괘	(고등) 이괘	(보합) 곤지
(고부동) 진뢰	태괘(하저둔중)	
간산 (보합)	감수 (하락)	건천(하저둔중)

이 점법에서는 우선 고저의 방향을 보아서 정하고 다음에는 변동(變動)의 대소를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적정가(適定價)를 점단한다.

고저 변동(高低變動)과 적정가(適正價)의 숫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적정가 등 숫자는 하도(河圖)의 수로 건괘와 태괘는 9, 4, 이괘는 2, 7, 진괘와 손괘는 3, 8, 감괘는 1, 6, 간괘와 곤괘는 5, 10을 쓴다.

올라갈 때는 기수(奇數)인 홀수를 쓰고, 내려갈 때는 우수(偶數)인 짝수를 취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즉응(卽應)해서 점단한다.

다음은 물가, 주식 등 고저의 과거, 현재, 미래 추단(推斷)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물가나 주식 등 고저 판단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추단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이괘를 얻어서 고등(高騰)한다는 뜻이 있더라도 이제까지 등위가 지속해오던 경우라면 이것을 과거의 점시로 삼고, 그 괄을 기초 삼아서 현재, 미래의 변화를 궁리한다.

즉 괄의 상의(象意)와 실제 사실과 그 시간적 추이,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나 대조 관찰해서 그런 연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궁리를 특히 중요시 하는 이 점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생괘법을 당연히 활용한다.

다음은 적정가 설정(設定)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가를 설정하는 데에는 주효(主爻)의 효괘(爻卦)를 본다.

즉, 육변서해 주효가 이괘(離卦)가 돼 있는 괄(화천대유, 화지진 등)을 득괘 했을 경우, 그 변효괘가 태괘였다면 고등(高騰)의 대세이나 일단은 내린다고 본다. 또한 주효가 감수(坎水)가 돼 있는 괄(수지비, 지수사 등)을 득괘 했을 경우, 변효괘가 감괘였다면 밑바닥까지 하락한다고 본다.

大有之○	小畜之○
효변(태괘)	효변(태괘)

比之○	師之○
효변(감괘)	효변(감괘)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